

“끈끈한 팀워크에 출연진 모두 빛나”

‘거미집’ 칸 비경쟁부문 초청
장영남·오정세·전여빈·정수정
조연 배우들 현지 인터뷰
“늘 웃음 넘치는 촬영 현장
캐릭터에 이질감 없이 스며들어”



장영남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

“제 인생의 변화를 기다려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정수정), “캐스팅이 확정됐을 때 잠이 안 올 정도로 흥분했습니다.”(장영남)

제76회 칸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초청된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은 배우들의 호연이 빛나는 작품이다. “배우들의 앙상블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김 감독은 주연 송강호뿐 아니라 조연과 단역까지 모든 출연진을 고루 비춘다.

장영남, 오정세, 전여빈, 정수정은 2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김 감독과 송강호와 함께하는 작업은 놓쳐선 안 되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다.

‘거미집’은 1970년대 영화감독 기열(송강호 분)이 걸작을 만들기 위해 촬영을 마친 영화를 다시 짚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블랙 코미디다.

장영남은 유신정권의 문공부가 두려워 재촬영을 반대하는 제작자 백 회장을, 전여빈은 그의 반대를 무릅쓰고 촬영을 강행하는 조카 미도를 연기했다. 정수정과 오정세는 기열이 만드는 작품의 주연 배우이자 스타인 호세와 유림 역을 각각 맡았다.

네 사람 모두 김 감독과 함께 제대로 작업한 것은 ‘거미집’이 처음이다.

오정세는 “김 감독님의 작품인 데다, 송강호 선배님과 연기를 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무슨 역할이든 ‘거미집’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장영남은 “저에게는 버킷리스트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에 참여한 건 행운이었다”면서 “백 회장 역할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고 감독님의 믿음에도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전여빈은 “김 감독님이 어느 날 촬영을 마치고

차 안에서 ‘내가 왜 인제야 장영남을 만났을까’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게 업지를 세웠다.

이들은 ‘거미집’을 촬영하면서 그 어떤 현장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끈끈함과 친밀감을 느꼈다고 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영화 세트장에 “‘거미집’ 촬영장에선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소문까지 날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작품이 첫 상업영화인 정수정은 선배들에게 “원래 이렇게 촬영장이 재밌고 가족 같으냐”고 물었다며 “부담감이 큰 상태로 촬영을 시작했는데(선배들께서) 극에 스며들게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영화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별것 아닌 대사를 리듬감 있게 주고받으며 웃음을 유발하고, 실제 영화 촬영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배우들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같다.

전여빈은 “이걸 이렇게 재밌게 살린다고?” 감탄한 신이 많았다”며 “시사회 때 한국 관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객들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호흡이 모두에게 전해졌다는 걸 실감했다”고 강조했다.

‘거미집’은 네 사람에게 데뷔 후 처음으로 칸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게 해준 작품이기도 하다.

‘거미집’은 25일 칸의 가장 큰 극장인 2000석

규모의 위미에르 대극장에서 상영됐다. 상영 후에는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긴 박수를 보냈다.

오정세는 “다른 영화가 기립박수를 받는 것을 지켜볼 때는 배우들에게 저 시간이 뻔뻔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획’ 하고 지나가더라”며 미소 지었다. 그는 “‘거미집’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 이를 계기로 칸의 ‘단골’이 되고 싶다”는 바람도 전했다.

정수정은 “이 작품으로 배우로서 새로운 ‘챕터’를 열게 됐다. 이후에 무엇을 하든 더 자신감을 갖고 임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칸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거머쥔 배우 송강호가 올해에는 시상자로 칸의 무대에 올랐다.

송강호는 27일(현지시간) 칸의 위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76회 칸영화제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시상했다.

송강호는 “영광된 자리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 기쁘다”면서 “배우나 예술가의 삶을 생각해 보면 기쁨과 고통의 시간이 공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76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아나토미 오브 어 폴’을 연출한 프랑스 여성 감독 쥐스틴 트리에가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연합뉴스

명불허전 ‘범죄도시3’

주말 이틀간 30만4000명 관람...정식 개봉전 박스오피스 2위



지난 28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극장. ‘범죄도시3’ 상영관에는 스크린 바로 앞줄까지 빈 좌석이 없을 정도로 관객이 가득 들어찼다.

영화 상영 내내 마동석의 핵주먹 한방에 악인들이 종잇장처럼 나가떨어지고, 마동석이 한마디씩 툭툭 유머를 던질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다.

마동석 주연의 액션 영화 ‘범죄도시 3’이 공식 개봉도 하기 전에 박스오피스 선두권에 오르는 등 흥행을 예고하고 있다.

29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틀간(27~28일) ‘범죄도시 3’은 관객 30만4000여명(매출액 점유율 23.1%)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했다.

1위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액션 영화 ‘본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32만3000여명·24.5%)를 바짝 쫓고 있다.

‘범죄도시 3’의 공식 개봉일이 이달 31일인데도 박스오피스에 집계되는 것은 이 영화가 이달 27일부터 제한적 규모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어서다.

입소문을 일으켜 흥행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다.

지난 주말 ‘범죄도시 3’은 마블 스튜디오 신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 (25만1000여명·18.8%)과 지난 24일 개봉한 디즈니 실사 뮤지컬 영화 ‘인어공주’ (22만9000여명·17.3%)도 가볍게 제쳤다.

‘범죄도시 3’가 31일 개봉해 본격적인 상영에 들어가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를 게 확실시된다. 지난 주말 1위인 ‘본노의 질주’는 상영 횟수가 9470회에 달했지만, 일종의 프리미어 상영인 ‘범죄도시 3’은 1822회밖에 안 됐다. ‘범죄도시 3’이 개봉하면 상영 횟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관객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다. 실 관객객의 평가가 반영된 CGV 플든에그 지수는 99%를 기록 중이다.

‘범죄도시 3’은 금천경찰서 강력반에서 서울 광역수사대로 옮긴 괴력의 형사 ‘마석도’(마동석)가 일본 야쿠자가 연루된 대형 마약 범죄를 소탕하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1960년대 미남스타’ 배우 김석훈 별세

‘두만강아 잘 있거라’·‘의적 일지매’ 등 출연...향년 9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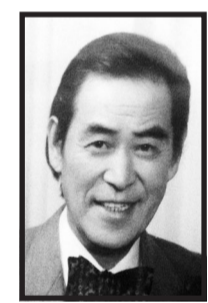
1960년대 스크린에서 잘생긴 외모로 인기를 끈 원로 배우 김석훈(본명 김영현)이 별세했다. 향년 94세.

29일 영화계와 유족 등에 따르면 김석훈은 전날 오후 1시 46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난 김석훈은 청주사범대를 나와 서울지방법원 서기로 근무하다가 1957년 유재원 감독의 ‘잇을 수 없는 사람들’로 데뷔했다.

당시 유 감독은 길을 가다가 김석훈의 외모가 눈에 띄어 그를 발탁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일약 스타로 떠오른 그는 약 250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다. 고인은 ‘햇빛 쏟아지



는 별판’ (1960), ‘두만강아 잘 있거라’ (1962), ‘정도’ (1972) 등 액션물뿐 아니라 ‘내마음의 노래’ (1960), ‘슬픈 목가’ (1960), ‘버림살년’ (1966) 등 멜로물에 출연했다.

대표작으로는 임권택 감독의 데뷔작이기도 한 ‘두만강아 잘 있거라’를 꼽을 수 있다. 이 영화에서 김석훈은 일본군에 맞서 학생독립단을 이끄는 투사 역할을 맡아 열연 액션 연기를 펼쳤다. 김석훈이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나온 것은 박재용 감독의 ‘비 오는 날의 수채화 2’ (1993)였다.

/연합뉴스

데뷔 15주년 샐리니 “모든 날이 빛났다”

4년 8개월 만에 완전체 팬미팅
“60주년 디너쇼 까지 함께할 것”

“샐리니가 빛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이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앞으로의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빛나는 날로 만들고 싶습니다.”

2008년 히트곡 ‘누난 너무 예뻐’로 가요계에 등장한 아이돌 그룹 샐리니가 데뷔 15주년을 맞았다.

샐리니의 멤버 태민은 2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7홀에서 연 팬미팅에서 “1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날이 빛나는 날이었다”고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소감을 말했다.

15년 전 5인조로 데뷔한 샐리니는 데뷔곡인 ‘누난 너무 예뻐’부터 ‘핑딩동’, ‘루시파’, ‘설국’ 등을 연달아 흥행시키며 2010년대 케이팝을 이끌었던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이다.

탄탄한 가창력과 독보적인 음악 세계, 다채로운 콘셉트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방송에서도 활약하며 대중적으로 사랑받았다.

최근 모든 멤버들이 군 복무를 마치며 ‘군백기’를 끝내고 돌아온 샐리니가 완전체로 팬 미팅을 연 건 이번이 4년 8개월 만이다.

정규 7집 타이틀곡 ‘돈트 콜 미’ 무대로 문을 연 샐리니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혼신간에 객석을 사로잡았다.

전날 열린 팬미팅 첫날 무대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멤버 윤유는 “팬의 함성을 듣자마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울렁거렸다”며 오랜만에 팬과 재회한 벅찬 소감을 말했다.

‘피스 오브 샤인’ (Piece of Shine)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팬미팅에서 샐리니는 지난 15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모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